

사회

# 예산 준대도 안 받은 광주교육청

## 학교급식 개선사업 신청 안해 지원금 全無 '안일 행정'

### 특별교부금 수익도 날려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해주는 학교급식 개선사업에 예산지원을 신청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수익원에 달하는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

17일 민주당 박해자(광주시 서구 갑)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6개 시·도교육청에 지원된 학교급식 개선사업 지원금은 모두 1200억원이다. 이는 각 학교 급식시설 신·증축

등을 위한 예산이다. 각 시·도교육청별로는 서울시교육청이 138억원(특별교부금 5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산시교육청 93억원(“ 33억원) ▲경기도교육청 79억원(“ 37억원) ▲강원도교육청 60억원(“ 27억원) 등의 순이다. 전남도교육청은 52억원(“ 24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단 한푼도 예산지원을 받지 못했다. 교육부가 지난 3월께 학교급식 개선사업 예산지원 신청서를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아예 예산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예산 신청을 받은 뒤 별도로 신청 금액의 30%를 더해 예산지원을 해줬다. 만약 1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다면, 3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더해 13억원의 학교급식 개선사업비로 지원해준 것이다.

결국 광주시교육청은 학교급식 개선사업 예산은 물론 특별교부금도 지원받지 못한 셈이다. 다른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중앙부처 실무자들을 직접 찾아 지원

을 요청하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에 노후한 학교급식시설이 있는데도, 교육부에서 지원해준다는 예산을 신청조차 안 했기 때문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학교급식시설 신·증축을 많이 해 올해 상반기엔 예산이 필요 없었다”며 “하반기에 4억원 가량의 예산 확보 방안이 있는 만큼 교육부에 예산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통일골든벨' 대회

'2012 민주평통 통일골든벨' 대회가 17일 광주 서구 화정동 빛고을 체육관에서 열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지역회의의 주최로 열린 대회에 참가한 광주지역 고교생 100여명이 문제를 풀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선거비 부풀리기 매뉴얼까지 만든 CNC

## 순천지청, 장만채 교육감 공모·이석기 의원 개입 여부 조사

이석기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의원이 최대주주인 CN커뮤니케이션즈(이하 CNC)가 2010년 6·2 지방선거, 지난 4·11 총선 등에서 선거비용을 부풀리기 위한 매뉴얼까지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7일 “압수 수색한 자료 가운데 CNC의 매뉴얼이 있었으며 여기에는 예비후보자의 선

거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 비용, 현수막이나 어깨띠, 홍보차량 등 선거운동에 쓰인 비용을 보전받는 방법, 후보별 보전율을 부풀리기 위한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매뉴얼대로 CNC 측이 선거비를 부풀려 보전받은 것으로 보고 회사 관계자들을 따라 불러 조

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직원들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주 내로 이미 조사를 받은 바 있는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을 불러 공모 여부를 다시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CNC 운영 과정에서 사소한 경비의 입출금까지 지

점 서명한 자료를 토대로 이 의원이 선거비용 부풀리기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만간 이 의원을 피의자로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으며, 증거자료가 있는 만큼 수사에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NC 측은 이날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문건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선거비용 보전 안내 책자라면서 검찰의 주장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 고리 대부업 경찰

## 불법 업자와 싸고 연 60% 이자 받아

불법 사금융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대부업자와 싸고 일반인에게 거액을 빌려주게 하고 그 대가로 높은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여수경찰은 17일 무허가 대부업자에게 거액을 투자,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박모(47) 경위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평소 알고 지내던 무허가 대부업자 최모(40) 씨에게 2009년 3월 가족 이름으로 1억5000만원을 투자한 뒤, 일반인에게 빌려주게 하고 수익금 조로 매달 5%의 이자를 받아 2012년 6월까지 3000

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에서 박 경위가 자신이 무허가로 영업하는 것을 알고도 투자까지 하며 묵인했으며 감압에 못이겨 매달 이익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미 구속된 대부업자 최씨와 박 경위가 수년간 거액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박 경위와 거래 정황이 있는 대부업자 최씨는 구속했다”며 “박 경위도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정희기자 chkim@

# 나원침 (8611) 김중두



# 11년 무노임 섬 노예생활 1억 받는다

## 50대 남성 밀린 임금 청구 민사배심 조정 재판 합의

11년 동안 외딴 섬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한 50대 남성이 법원의 민사배심 조정재판을 거쳐 못받은 임금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강화)는 17일 “김모(50)씨가 서모(59)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민사배심 조정을 통해 서씨가 김씨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이 합의됐다” 밝혔다.

지난 16일 목포지원 4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민사배심 조정재판에는 12명의 조정위원들이 참

석해 서씨의 외딴 섬에 끌려가 11년간 농장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김씨와 농장주 서씨의 주장을 들은 뒤 2시간여 동안 격론을 벌였다.

이날 재판에서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상태인 김씨는 “돈을 많이 주는 곳에 데려가 주겠다는 브로커의 말을 믿고 신안군 한 섬으로 따라간 뒤 서씨의 농장에 약 11년 동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일을 했다”며 밀린 임금을 청구했다. 농장주인 서씨의 해명까지 들은 조정위원들은 이들에게 1억5000만원의 조정안을 제시했으며, 당사자들이 이에 합의하면서 재판은 끝났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 외제차 사고 위장 보험금 타

광주북부경찰은 17일 침수 피해를 입어 운행이 불가능한 고가의 외제차량을 교통사고가 난 것 처럼 위장, 보험금을 타낸 김모(39)씨 등 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월 1일 새벽 1시30분께 광주 북구 용전동 패들리랜드 앞 저수지에서 벤츠 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간 충돌 사고를 위장해 보험금 34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

# 여성자 추행 “필름 끊겼다” 무죄 주장

○병원에서 여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련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

○17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에 따르면 성폭력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수련의 이모(29)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측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환자 입원실과 숙직실을 구분하지 못했다”며 이른바 필름이 끊기는 현상(블랙아웃)을 주장한 뒤 현상검증을 요청.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7일 병원에서 현상검증을 실시하고 병실과 숙직실 입구가 술에 취했을 경우 혼동할 정도인지 등을 살펴볼 계획.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 카드관리 소홀 골퍼 사망 캐디에 벌금 300만원

## 광주지법 선고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종석 판사는 17일 골프장 내에서 운행하는 카트를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오르막길에 정차시켜 골퍼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곡성군 내 한 골프장 경기보조원 양모(39·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양씨가 경사진 곳에 제동장치를 완전히 작동하지 않은 채 카트를 세워놓는 바람에 피해자가 탄 카트가 미끄러져 사

고를 발생하게 했다”며 “양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곡성군 한 골프장 경기보조원인 양씨는 지난 2월14일 오후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최고 경사각이 14도인 내리막길에 카트를 정차시켰으나 문모(67)씨가 티업을 끝내고 혼자 탑승했다가 카트가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바다에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현석기자 chadod@

경찰청지정 운전면허 시험장

트레이러 대형 1,2종보통 2종소형(오토바이)

문자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광주 최대의 규모 깨끗한 환경 친절한 강사진

학원에서 교육한 차량으로 주5회 장내·도로 자체시험 실시

- 새벽반, 야간반, 주말반 운영
- 2012년 7월 부터 수강료에 부가세 과세확정
- 교재무료 배부
- 11월부터 도로주행 시험강화로 수강료인상 예정
- 셔틀버스 운행

“공원같이 아늑한 학원진경”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위치: 신가동 사거리 분향교회 옆, 중앙아동병원 앞 ☎062-951-5100

트레이러 대형 1,2종보통 2종소형(오토바이)

문자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광주 최대의 규모 깨끗한 환경 친절한 강사진

학원에서 교육한 차량으로 주5회 장내·도로 자체시험 실시

- 새벽반, 야간반, 주말반 운영
- 2012년 7월 부터 수강료에 부가세 과세확정
- 교재무료 배부
- 11월부터 도로주행 시험강화로 수강료인상 예정
- 셔틀버스 운행

“공원같이 아늑한 학원진경”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위치: 신가동 사거리 분향교회 옆, 중앙아동병원 앞 ☎062-951-5100